

국 어 (9 급)

(과목코드 : 014)

2026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덮개’는 합성어이다.
- ② ‘먹이다’는 파생어이다.
- ③ ‘손수건’은 파생어이다.
- ④ ‘꽃사과’는 합성어이다.

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수하지 않게 눈 똑바로 뜨고 일해라.
- ② 잠시 눈을 붙였다니 몸이 한결 나아졌다.
- ③ 동생은 눈에 모를 세운 친근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 ④ 생일을 맞아 눈 딱 감고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동문 형성의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능동)
→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피동)

- ① 마을이 흰 눈으로 덮였다.
- ② 오늘은 추운 날씨가 풀렸다.
- ③ 나는 그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
- ④ 이 책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다.

4. 밑줄 친 외래어 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일을 맞아 케이크(cake)를 준비했다.
- ② 관광지 안내용 팜플렛(pamphlet)을 제작하였다.
- ③ 동생은 달콤한 초콜릿(chocolate)을 무척 좋아한다.
- ④ 세계가 우리의 전통 콘텐츠(contents)에 공감하고 있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대높임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대우하여 말하는 등급으로 배우자와 같이 거리는 가까우나 격식적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 ① 이제 어디로 가시오?
- ② 철수야, 이리 와 보렴.
- ③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세요?
- ④ 자네, 혼자서 할 수 있겠나?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므츨내 제 브들 시러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字를 밍그노니 사릅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安키 호고져 흙 썩르미니라

- ① 새로운 문자 창제의 뜻을 알리고 있다.
- ② 새로 만든 문자는 28자로 이루어져 있다.
- ③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문자가 나타난다.
- ④ ‘어린 百姓’은 ‘나이가 적은 百姓’이라는 뜻이다.

7. (가)~(다)의 뜻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로만 연결된 것은?

- (가)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이익을 놓침.
 (나) 남의 말만 듣고 주체 없이 판단함.
 (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실제로는 부드러움.

- ① (가) 견리망의(見利忘義)
 (나) 이합집산(離合集散)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② (가) 소탐대실(小貪大失)
 (나) 부화뇌동(附和雷同)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③ (가) 견리망의(見利忘義)
 (나) 부화뇌동(附和雷同)
 (다) 외강내유(外剛內柔)
 ④ (가) 소탐대실(小貪大失)
 (나) 이합집산(離合集散)
 (다) 외유내강(外柔內剛)

8. 다음 글의 밑줄 친 ‘동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 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중략)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① 인물이 장차 획득하게 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
 ② 인물이 처한 고독한 처지와 현실적 삶의 무게를 상징한다.
 ③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매개체이다.
 ④ 과거의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이다.

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주류 언어학은 의미전달을 위한 추상적인 구조로 언어를 이해한다. 즉 언어는 다양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의미 있게 구성하여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문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문법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사용자는 한국어로 말할 때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면지,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맡은 문법적 기능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주류 언어학은 이러한 추상적인 지식의 구성원리를 밝혀냄으로써 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로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신,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공간, 즉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에서 출발한다. 사회언어학에서 바라보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무관한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여기서 언어는 단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며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사회언어학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

- ① 머릿속에 내재한 구조화된 문법이 출발점이다.
 ② 언어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다.
 ③ 사람들 간의 소통을 조직하는 추상적인 기능이 본질이다.
 ④ 언어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10.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할√수√있다면√해√보아라.
 ② 그는√나를√도와줄수√없다.
 ③ 우리는√오늘√뿐만√아니라√내일도√만난다.
 ④ 그√일은√생각√한√바가√아니다.

11. 다음의 ‘형태소’에 대한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예를 들어, ‘바다’를 ‘바’와 ‘다’로 나눌 경우 ‘바’와 ‘다’가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바다’는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봄꽃’은 의미를 가진 ‘봄’과 ‘꽃’으로 나누어지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다.

- ① ‘집에 간다’의 ‘에’
- ② ‘국물이 식었다’의 ‘었’
- ③ ‘꽃이 예쁘구나’의 ‘구나’
- ④ ‘나는 학교에 갑니다’의 ‘니’

1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의사 결정은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 한계를 지니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오류를 범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어졌을 때, 손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손실 회피’로 불리며, 인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는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편향된 결론을 낳을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 결정은 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제한된 인지 능력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 ② 인간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한다.
- ③ 손실은 이익보다 작게 인식된다.
- ④ 인간은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심에 싸인 그의 표정은 한없이 어둡기만 하였다.
- ② 이 곤욕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 ③ 이번 음악회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였다.
- ④ 우리 경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4.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바로잡은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 불법 체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외국인 불법 체류! 더는 안 됩니다.
- ② 사료용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하순 무렵에 수확할 수 있어 연간 삼모작 재배도 가능하다.
→ 사료용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하순 무렵에 수확할 수 있어 한 해 동안에 삼모작도 가능하다.
- ③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녹색 성장 관련 전문가 그룹인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연구단을 통해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녹색 성장 관련 전문가 그룹인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연구단에 자문하고
- ④ 가로변 쓰레기통은 결박하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
→ 가로변 쓰레기통은 고정해 두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

15. ㉠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의 ‘가치’, 함께할 때 아름답습니다.

- ① ‘말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 ② ‘굳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 ③ ‘곧이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 ④ ‘밭이다’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 [16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 왔다. (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그 결과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나)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 종과 환경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체계이다. (다) 각 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된다. (라) 따라서 특정 종의 감소나 소멸은 단순히 그 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된다.

특히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종이 존재할수록 생태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일부 종이 사라지더라도 전체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그 결과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인간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 인간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16.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자연 이용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 ② 생태계의 안정성은 종 간 상호작용과 다양성에 의존한다.
- ③ 생물다양성은 인간과 무관한 문제이다.
- ④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서,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다.

17. 윗글에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8. 다음 시의 밑줄 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유형이 같은 것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이형기, 「낙화」 -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②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④ 꽃처럼 붉은 울음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기는 조부의 완고한 고집에 속이 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부의 저러한 태도가 이해가 가기도 하였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 염상섭, 「삼대」 -

- ① 인물의 외적 행동만 제시되는 관찰자 시점이다.
- ②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진술하는 1인칭 시점이다.
- ③ 특정 인물의 내면이 중심으로 제시되는 시점이다.
- ④ 여러 인물의 내면이 자유롭게 제시되는 전지적 시점이다.

※ [20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이므로, 개발 및 활용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담은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 존엄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인간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으나,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둘째는 ‘사회의 공익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셋째는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본래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술이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3대 원칙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효율적인 기술을 넘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 ② ‘사회의 공익 원칙’은 특정 계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방지는 ‘기술의 합목적성’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 ④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라면, 상황에 따라 인간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1. 위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심 개념을 제시한 후, 이를 하위 원칙별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대조하여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③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을 귀납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할머니는 귀를 잡수셔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라는 말이 있다. 당연히 ‘귀를 잡수시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이런 말을 쓰는 것일까? 먼저 ‘귀를 먹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귀 먹다’는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인데 이때의 ‘먹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다’는 뜻의 ‘먹다’라면 ‘귀를 먹다’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음식물을 먹다’ 외에 ‘먹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의 의미를 가진 ‘먹다’이다. ‘코 먹은 소리를 내다’의 ‘코 먹다’를 생각해 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자기 귀가 막힌 듯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다’는 뜻의 ‘먹먹하다’를 생각해 보면 ‘먹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먹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말은 모음 하나만 다른 ‘막다’이다. ‘귀를 먹는’ 것과 ‘귀를 막는’ 것, ‘코를 먹는’ 것과 ‘코를 막는’ 것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럼 ‘귀를 잡수셨다’는 어떻게 된 말일까? 이는 ‘귀를 먹다’의 ‘먹다’를 ‘음식물을 먹다’의 ‘먹다’로 오해하고 높임말인 ‘잡수시다’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머니 이것도 잡수세요”와 같이 높임말로 쓰이는 ‘잡수시다’를 채용한 것이다.

- ① ‘귀 먹다’는 ‘귀’와 ‘먹다’로 분석할 수 없다.
- ② ‘귀 먹다’의 ‘먹다’는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이다.
- ③ ‘코 먹다’의 ‘먹다’는 ‘귀 먹다’의 ‘먹다’와 동일한 말이다.
- ④ ‘귀 잡수시다’는 ‘막다’와 관련 있는 ‘먹다’의 높임말을 쓴 것이다.

※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협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23. 위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함박눈의 이미지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 ②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은 북쪽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③ 함박눈은 혹독한 북방의 기후와 날씨를 상징한다.
- ④ 북방은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고향 같은 곳이다.

24.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표현으로 보아 화자가 말하는 북쪽은 산악지대인 것을 알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북쪽의 지형을 암시하며, 기차로도 쉽게 가기는 어렵다는 암시를 준다.
- ③ ㉢은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아주 외진 산골에 위치한다.
- ④ ㉣은 이 세상에 없는 이상향으로서 ‘북쪽’이라는 방향으로만 암시될 뿐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상상 속에서 추상화된 공간이다.

2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 표현의 의미는 단어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화자의 의도나 발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체는 물론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발화되지 않은 내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는 모든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청자는 맥락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론한다. 이처럼 의미는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 ① 의미 형성에서 맥락과 추론의 역할
- ② 언어 표현의 구조적 특성
- ③ 사전적 의미의 중요성
- ④ 발화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